

“복수심 내려놓고 자비심 키우세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②9 복수보다 힘든 것

새 사람이 되고 싶다

“그놈에게 꼭 복수해야 합니다.”
S씨가 험한 표정으로 말했다. 벌써 전과가 몇 번인 그는 몇 년 전 지방 교도소 복역 도중 불교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
그 전엔 관심도 없었고 어쩌다 불교 책을 보면 한문이 많고 어려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좀 달랐다. 사심이 넘은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불교상담을 담당하는 법사라는 사람은 항상 기도에 줄 내용을 자상하게 물어보고 매일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 년을 멀리서 일하며 자신을 보러 오면서도 조금도 지친 기색이 없었다. 필요한 것도 이것저것 챙겨주었다.
성의가 고마워서 약속대로 <반야심경>과 <천수경>을 사경하였다. 스님이 한글로 풀이하셨다는 내용이 한문보다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였다.
처음에는 “전 글씨 잘 못쓰는데요” 하였지만 법사는 “진리의 말씀은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쓰는 겁니다”라며 미소 지었다.
부처님은 쓰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었다. 과연 부처님이 이런 곳에 갇혀있는 보잘 것 없는 나 같은 사람까지 아십니까? 믿기는 어려웠지만 정성껏 쓰는 만큼 지어 놓은 업도 녹는다

고 하니 감사한 일이었다. 결국 출소하면 마음잡고 살기로 한 것이다.

업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그러나 고민이 한 가지 있었다. 이번 일은 동료였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역을했다. 배신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냥 놔둘 수가 없었다.
나가서 꼭 그 원수는 갚고 싶었다. 그러나 그

동료의 배신으로 교도소 복역 증오심으로 출소 후 복수 계획 ‘마음의 힘’ 단련으로 용서 결심

려면 또 들어오게 될 것이고, 바르게살기로 법사님과 약속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이 되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 상담 시간에 털어놓기로 했다. 사정을 말하고 “복수해야지요, 저도 사나이인데!” 그리고 사람 하나 손보는 것 뭐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제가 이래 봐도 운동은...” 하였다.
약간은 자랑스럽게 얼마나 험한 일도 했었는지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법사는 조용히 “복수는 쉬운 일이지요” 하는 것 아닌가. “법사님, 쉬운 건 아닙니다. 상대가 만만하지 않거든요.”

법사는 정색을 하고 “그래도 당한 만큼 돌려준다. 복수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짐승도 때려 보세요. 가만히 있나오.” 생각해 보니 그렇기는 했다. 법사는 “증오하는 것도 쉬워요. 당하면 누구나 상대를 미워하니까요. 그러나 그러면 영원히 그 업에 묶이는 겁니다. 증오나 복수는 들고 돌게 됩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부처님 말씀이 같은 인연끼리 까리끼리 만난다고 하셨어요.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 이제까지와 달리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업이 변하게 됩니다. 바르게 살고 싶으면 마음을 바르게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마음싸움에서 이기기

“복수보다 백 번 천 번 힘든 게 뭘지 아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증오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용서하며 하물며 기도라니. “전 못하겠어요.” “그래요. 아직 못하시겠지요. 불자가 된다는 것은 몸싸움과는 비할 수 없이 힘든 마음싸움을 하는 거예요.” 몸싸움이라면 자신 있는데 마음싸움이라니 그런 건 생각 못했었다. “부처님을 비롯해서 모든 스님들과 불자들은 바로 힘들고 어려운 자기 자신과의 싸움, 마음싸움을 해 온 분들입니다. 바른 길을 가기위한 싸움, 업을 바꾸려는 정진이지요. 몸의 근육도 단련하면 강해지듯이 마음도 마찬가지로 노력할수록 정법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날 밤 기도하며 S씨는 복수는 진짜 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체의 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으니 바로 부처님 마음의 힘, 자비로우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자신은 없지만 앞으로 난생처음 바른 마음의 힘을 한번 걸러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부처님 감사합니다

마음속 은인

심종선(가명) 대전교도소

지금 저의 머리맡에는 염주가 놓여 있습니다. 매일 같이 보고 만지며 제 스스로에게 위로를 합니다. 어느덧 이곳에서 수감생활을 한지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반성을 하며 새로이 태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수용생활을 시작하면서 너무도 낯설고 적응이 되지 않아 혼자서 많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누군가가 제 곁에 와서 “종교에 관심을 두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며 한 권의 성경책을 주었고 한 구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였는지 눈으로 읽고는 있지만 마음은 허공에 떠 있는 듯 갈 곳 잃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다른 곳으로 이감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아니 필연처럼 한 분의 스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무런 말없이 지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로 함께 하며 서로서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어 보니 이분의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들과는 사뭇 틀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도 죄를 짓고 이런 곳에 오다니 벌 수 없구나”라며 좋지 않은 시선으로 그 분을 대하였던 처음과는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며 믿고 있었습니다. 무모함보다는 사람을 믿는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그분과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며 점점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지금껏 그 누구에게도 제 마음 속내를 모두 얘기해 본 적이 없었지만 어느덧 그분께는 제가 가진 모든 아픔까지도 다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종교적인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무엇보다 강한 것이 마음 속 한구석에서 끓어오름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따라하라”는 옛말처럼 저는 하나 둘씩 그 분을 닮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합장을 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고, 또 아침저녁으로는 벽을 보고 참선을 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달여 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제 마음에 점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마음으로부터 안정을 찾기 시작하였고 항상 불안해하고 조바심 많으며 자아보였던 제 마음이, 남을 배려하고 기분 좋게 살아가고 싶어 하며 여유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에게서 불교에 관한 많은 얘기를 들으며 제 자신이 그 동안 얼마나 헛되이 살아왔었는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거짓처럼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스님께서는 이곳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 마치 제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나가시며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절대 잃지 말고 처음 가졌던 마음, 초심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저를 위한 책을 한 권 넘어 주셨는데 그 책의 첫 표지에는 ‘인연공덕(因緣功德)’이라는 한자와 함께 제가 이곳에서 생활하며 힘이 될 때 읽어보라며 좋은 글들을 적어 두셨습니니다. 스님이 가시고 난 후 혼자서 눈시울을 적시며 많은 그리움과 정을 느꼈습니다. 불가에서 사람의 인연은 억겁년을 이어져야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모든 인연을 소중히 하며 그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이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대전교도소로 이감 와서 출력을 한지도 2년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교 집회에 나가 더 배우고 깨달으려고 했습니다.
한 분의 스님을 통해서 보았던 불교라는 종교가 저에게 준 기쁨과 사랑을 가장 큰 변화가 아니라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날들이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껏 지내 온 날들보다 지내야 할 날들이 더 많이 남아있기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기 위해 요즘에도 저는 아침저녁으로 염주를 손에 쥐고 관세음보살께 기원드립니다. 지금 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기를, 아니 더는 내뺄지 않기를 믿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제 스스로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면 스스로 부처가 된다”고 믿고 앞으로는 더욱 정진하며 살아갈 것을 다스린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작은 일개울과 삶의 안식이 되어주시는 스님의 은화함을 머릿속에 그려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그때와는 다른, 하지만 마음만은 그때와 같은 초심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더욱 전념할 것을 스스로 약속하며 모든 분들이 성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끝>



그림: 문병성

수감생활 중 스님 만나 불교와 ‘인연’ 마음의 평안 얻고 ‘깨달음’ 공부 정진

육천 대상사 주최 '제1회 전국 수행자 호 문학작품' 공모 호 편지 특별상 수상작

신영게시판

●**도선사 9월 5일, 7일, 9일 3일 기도 입마** 도선사가 9월 5일 7일 9일 3일 기도 및 소원성취 등(해탈)을 인제한다. 7일 기도: 2003년 성관세음보살을 시작으로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 7일 기도(3일)에 대해 올린 기도이다. 지난해 7일 기도(3일)에 대한 관음기도를 마무리한 도선사는 올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성관세음보살(3일)기도를 봉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도하게 될 성관세음은 모든 관음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고려 불화 속 관음보살도 등에서 수월관음이 성관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천수관세음보살은 1000개의 지비스러운 눈으로 중생을 보고, 1000개의 지비스러운 손으로 중생을 삼취한다고 했기에, 무수한 관음 가운데서 지비로 최고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7일 기도 3일 기도에 동참하는 불자들에게는 관세음보살본상(묘유자대명왕연연)을 올 마니 반에 풀이 새겨진 도장을 경명주사로 낙관하여 나눠준다. (02933-3161)

●**육자장사 삼보불교대학 개강** 육자장사가 9월 4일 삼보불교대학을 개강한다. 삼보불교대학에서는 불교 이해와 신학, 불교문화, 불교사의 이해, 포교이론, 경전의 이해 등을 가르칠 예정이다. 육자장사 회주 자원 스님을 비롯해 육자장사 주지 하경 스님, 동국대 김호규 박사, 윤선용 상임법사 등이 교수진에 포함됐다. (02352-6406)

●**회계사 신도교육 실시**서울 회계사가 9월 4일부터 신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개월 기본교육과정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불교인문)을 교재로 대각광전에서 수업한다. 6개월 교양과정은 (예불문) (천수경)을 교재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강의가 열린다. 1년 코스인 경전연구반은 불교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 강의한다. 교재는 (사십이장경). (02197-6469)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불교상담사 강좌**동국대 사회교육원이 1년 과정의 불교상담사 강좌를 개설한다. 불교기초 교리와 상담이론 등을 배우게 될 불교상담사 강좌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열린다. 1년간 강의를 이수하면 동국대에서 발행하는 불교상담사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으며 전형을 거쳐 불교상담원에서 불교상담원사증을 수여한다. 접수는 8월 31일까지. (02) 2260-3728-9

●**능인불교대학 44기 수강생 모집**서울 능인선원이 능인불교대학 4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주강은 9월 4일 오전 10시, 야강은 9월 5일 오후 7시에 각각 개강한다. 불교기초교리, 근본불교, 불교의식, 비교종교학, 사찰에서의 기법예절, 생활의 지혜 등의 강의를 진행한다. (02677-5800)

석청

WILD HONEY

놀라운 NEPAL 히말라야 석청(꿀) WILD HONEY 효과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산 2500-4000M의 높은산에서 서식하는 '아피스라보리오사(Apis Laboriosa)벌이 만들어 내는 천연 꿀로서 옛날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다.

이벌은 덩치가 크고 사나우며 높은 바위에 벌집을 짓고, 벌집의 크기는 자동차 크기만한 것도 있다. 석청을 채취하는 사람들은 '바랑게'라 부르며, 밧줄로 사다리를 만들어 높은 바위속으로 올라가 석청을 대나무장대로 채취하며, 밑에서는 연기를 피우며 거뿐로 떨어지는 석청을 받는다.

석청은 난치병 치료에 특효하며 히말라야 한의사들은 만병통치약이라 부른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며 네팔왕실에서는 국가를 방문하는 귀빈들에게 답례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석청이 알려져 우리나라 KBS에서 2년이나 현지에서 석청 채취장면을 촬영하여 방영한 바 있다. 고질병, 난치병 치료에 효과와 체력 사례들이 알려져, 여성잡지「Queen」에 당뇨치료 효과가 특집으로 소개되어 국내에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 굳어있는 세포를 생성시키고, 15일만 복용해도 정력이 왕성해져 '바이그라'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
- 복용후 2~3주가 지나면 오장육부가 좋아져 피부가 윤택해진다.
- 암, 간염, 위궤양, 위염, 중풍, 당뇨, 고혈압, 아맹증, 아토피성피부, 관절염, 기관지천식, 신경통, 중이염, 만성두통, 변비, 성기능 장애등 고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혈액순환장애)
- 체질을 개선하고, 노화를 방지한다.

*이론 부위가 화끈거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플아플하고, 땀이 나고, 설사나 대소변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의식이 몽롱해지고, 눈물이 나기도하는 증세들은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체질이 변하고 있고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면 된다.

KOREA.NEPALEXCHANGE CULTURE ASSOCIATION

한국네팔 문화교류협회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8동 159-48 TEL : 02)2692-5363

울산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690-1 TEL : 052)264-0126, 0577 M.P : 010-5559-5570 / 010-7159-4759 E-mail : JUNGRANI227@hanmail.net

●가 격 : 600g(15일분) 30만원 / 1kg(1달분) 50만원
*현재 백화점 소핑몰에서 1kg(1달분)을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 의 : 010-6232-6295 / 010-5559-5570
054-751-9755

●온라인 : 신협 10115-13-032450 최정란 / 경남은행 540-21-0500183 최정란 (입금후 2일내 배송)